

‘모두 창업’으로 혁신창업가 5000명 발굴... 지역상권 살린다

중기부,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서
부처 합동 창업 프로젝트 발표
창업기관·선배 참여 플랫폼 구축
로컬창업가 매년 1만명 발굴·육성
2030년 글로벌상권·백년시장 조성
핵심 “모두 창업” 창업가 도전 핵심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한다.

119곳의 창업 보육기관, 526명의 선배 창업가 등이 두루 참여하는 창업 플랫폼을 구축해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든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통해 선 매년 로컬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곳을 육성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관광 상권 17곳, 로컬테마상권 50곳, 백년시장 12곳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연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의 창업”은 창업가의 도전이 핵심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자는 자금, 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두의 창업은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창업 환경 구현을 목표로 ▲체계적인 성장 경로 구축 ▲혁신 창업 플랫폼 도입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주로 진행한다.

선발 예정인 5000명의 혁신 창업가는 지역 균형성장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서 70% 이상을 뽑는다.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솔루션’도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119곳의 창업·보육기관, 526명의 선

배 창업가가 참여하는 혁신 창업 플랫폼도 구축한다.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모두의 창업 활동 경험을 개인 이력으로 쓸 수 있게 ‘도전 경력 증명서’를 발행하고 향후 창업 지원 사업 시 우대한다. 이미 참여한 창업가들이 제2차 모두의 창업에 다시 도전할 경우 재도전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중기부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통해 상권의 점(창업)·선(성장)·면(확산)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전략도 수립했다.

지방 상권의 씨앗(점)이 될 로컬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

년 로컬 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 기업 1000개사를 키운다.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발굴에 그치지 않고 선배 창업가 100명과 투자사,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로컬 창업자를 뒷받침한다. 지방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로컬창업타운도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로컬 창업을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 3종도 신설한다. 올해 4분기 도입될 ‘AI 도우미 서비스’부터 ‘AI 교육과정’, ‘AI 내비게이션’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지역 문제 해결형 로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로컬창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 100명의 ‘농촌 소멸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금융권이 출연하는 1000억원 규모의 특산물 구매 특례보증으로 지역 주민과 동반 성장도 꾀한다. 그밖에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 관광상품 개발, 사회연대형 로컬기업 등을 지원한다.

로컬 기업 성장과 지방 상권 구축을 위해 ‘립스(LIPS)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립스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 기업에 최대 5억원의 투자 금액 매칭을 지원한다. 사업자 자금 최대 2억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노삼석 대표가 지난 2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진

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2029년까지 연임

“글로벌 물류 기업 위상 공고히”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가 3년간 더 회사를 이끌게 됐다.

한진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임기가 끝난 노삼석·조현민 사내이사의 연임 안건도 통과했다.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선 임기가 만료된 노삼석 대표의 연임을 의결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20년 취임 이후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진의 실적·양적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번 재선임으로 노 대표는 2029년 3월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다. 향후 한진은 노 대표의 지휘 아래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 대표는 “앞으로도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GM, 韓 사업장에 9000억 투자... 소형 SUV 거점 강화

작년 발표한 3억달러 포함
생산설비·안전인프라 고도화
3년 연속 흑자 속 철수설 진화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사업장에 3억달러(약 45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투자 계획과 합하면 총 6억달러(약 9000억원)를 한국에 투입하는 것이다. GM은 한국GM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만큼 그동안 불거진 철수설을 불식시키고 소형 SUV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GM은 제품 및 공장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사업장에 6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글로벌 시장 수출을 위해 선적 중인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한국지엠

25일 밝혔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겸 CEO는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된 글로벌 차량의 성공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신규 업체들이 잇따라 G

M의 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한국 사업장 운영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생산 설비 고도화, 안전 인프라 및 작업환경 개선, 운영 효율성 향상에 투자를 집중한다. 이 일환으로 새로운 프레스 기계 도입을 포함한 생산 시설 현대화에 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GM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 생산 소형 SUV 모델의 공장 성능 향상, 상품성 강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억 달러 투자 계획에 추가되는 내용이다.

한국GM은 이날 한국에 대한 총 6억

달러 투자 계획을 기념하기 위해 부평 공장내 프레스공장에서 노동조합과 공동 행사를 개최했다.

비자레알 사장은 “이번 투자의 핵심에는 매일 현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도입되는 최첨단 프레스 설비는 제조 현장의 안전과 품질,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SUV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M 한국사업장의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며 함께 노력해 온 직원들과 노동조합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퓨처엠,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 나선다

금호석화·BEI와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밀도 높이고 충전속도 향상

포스코퓨처엠이 금호석유화학, 비아이(BEI)와 손잡고 에너지밀도와 충전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소재부터 셀 제조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금호석유화학, BEI와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세 기업이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고성능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세 회사가 개발하는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는 음극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공간을 활용해 에너지밀도를 기존 대비 30~50% 높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다. 충전 시 양극재의 리튬이온이

음극을 거치지 않고 금속 집전체 표면에 직접 부착되는 방식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2배 이상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는 배터리 경량화와 고성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드론, 항공 모빌리티, 고성능 전기차, 로보틱스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생산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투자 부담을 줄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제조 비용 절감 효과도 가능

하다.

이번 협력에서 포스코퓨처엠은 무음극 배터리에 최적화된 양극재 기술을 바탕으로 성능 구현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금호석유화학은 전자 이동을 돕는 고기능성 탄소나노튜브(CNT)를 적용해 충전 속도와 수명 향상에 기여하고 BEI는 이를 실제 배터리로 구현하는 제조 기술을 담당한다.

세 회사는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드론과 로보틱스 등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공동 사업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대한민국 수산대전’

20% 할인쿠폰 선물

‘수산인의 날’ 기념 기획전도

공영홈쇼핑이 4월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을 진행한다.

2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물가 부담은 낮추고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한 수산대전은 이날부터 오는 4월7일까지 2주간 공영홈쇼핑 온라인 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 수산물 20% 할인 쿠폰을 선사한다. 오징어, 굴비, 갈치, 고등어, 김 등 인기 수산물이 대상으로, 쿠폰은 계정(ID)당 일주일에 한 장씩 발급하며,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공영홈쇼핑의 수산물 전문 프로그램 ‘바다어부’에서도 특집방송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과 오후 4시 40분, 토요일 오후 5시 20분에 은갈치, 오징어, 굴비 등을 판매한다.

모바일라이브커머스인 ‘공영라방’에서는 이날 제주도를 직접 찾아 현장 라이브를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자